

전국 수재들 제친 금호고생의 아름다운 도전

2학년생 구성 과학동아리 '디스커버'팀 "물 기근 아프리카 돕자" 정수기 개발 사이언스 챌린지 대상... 상금 일부 기부

"물 부족과 오염된 물에 신음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광주 금호고생들이 물기근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인들을 염려하며 오염된 물을 걸러내는 정수기를 개발해 과학·영재 등 유명 고교생들이 대거 참가한 국내 최대 과학탐구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특히 이들은 상금으로 받은 장학금(4000만원) 일부를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는데 쓰기로 해 의미를 더 크게 하고 있다.

24일 금호고에 따르면 이 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디스커버'(정준기·박대웅·박진웅 이상 2학년·지도교사 신재성)팀이 '사이언스 챌린지 2011' 대회에서 '적정기술을 이용한 놀이형 정수기 개발' 연구로 대상을 수상했다. 한화그룹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Saving Earth'를 주제로 열렸다. '디스커버'는 전국 347개 고교 868팀(2300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 최종결선에 올라 민족사관고, 인천과학고·한국과학영재고 등 내로라 하는 특목고를 제쳐 주목받았다. '적정기술을 이용한 놀이형 정수기'는 놀이기구인 트램펄린(탄력 있는 매트 위에서 뛰어 노는 기구)과 정수원리를 결합한 신개념 정수기다. 아이들이 도약하고 착지할 때마다 팽창·수축하는 메트의 운동 에너지를 활용한 게 특징이다. 이 운동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압력 펌프를 설치해 오염된 물을 빨아들인 뒤 다시 대나무숯 필터를 통과하도록 해 물을 정화하는 방식이다.

디스커버 팀은 아프리카 등 물부족 국가와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한다. 오염된 물을 간이 정수필터가 장착된 빨대로 마시는



금호고 박진웅·박대웅·정준기(이상 2학년·왼쪽부터)군이 24일 학교에서 '사이언스 챌린지 2011' 대회 대상작인 '놀이형 정수기'를 시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다.

정준기·박진웅 군은 "오염된 물을 마시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을 돕기 위해 기술개발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3월부터 5개월 여 동안 방과후, 휴일 등 틈날 때마다 제품제작, 실험 등에 매달렸다. 술

한 시행착오도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이들의 열정을 꺾지 못했다. 물리담당인 신재성 교사는 제자들의 연구를 헌신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들은 이번 대회에서 장학금으로 받은 4000만원의 일부를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동들을 돕기 위해 쓰기로 했다. 디스커버 팀원들은 해외 연수와 대회 주최사인 한화그룹 입

사우대 특전도 누리게 됐다.

박대웅 군은 "물부족 국가인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연구를 진행해 큰상을 받은 만큼 뜻을 살려 상금을 이들을 위해 쓰기로 했다"며 "정수기가 상용화돼 물부족 국가의 어린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경찰 갈수록 기관

경찰의 날 만취한 경사 포장마차 여주인 폭행

음주사고와 성매매·뇌물수수 등 잇단 비위로 구설수에 오른 광주경찰이 이번에는 포장마차 여주인 폭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은 24일 술을 마시고 포장마차 여주인을 폭행한 동부경찰 소속 최모(46) 경사를 폭행 혐의로 불검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 경사는 지난 22일 새벽 0시40분경 광주시 북구 양산동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여주인(42)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경사는 경찰의 날인 21일 근무를 마치고 함께 근무했던 동료 경찰관 2명과 술을 마신 뒤 여성 1명을 불러 2차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8423) 김종두



검찰 수사기록 빼낸 판사 출신 변호사 무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신지는 판사는 24일 검찰의 수사기록을 빼낸 혐의(공무상 기밀누설 교사)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A(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맡은 사건 번호를 위해 판사 재직 때부터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외부 열람이 금지된 검찰 수사 기록의 복사를 부탁해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수역 부식비 꿀꺽 요양원 시설장 덜미

광산경찰, 사전 영장 신청

광주광산경찰은 24일 중증 장애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식자재 구입비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갹진 광주 모 노인요양원 시설장 A(여·58)씨와 총무팀장 B(여·38)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무국장 C(4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월 말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총무팀장 B

씨와 짜고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식자재 구입비를 부풀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5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식료품 가게 주인 등 5명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금받은 뒤 자신들의 통장으로 차액을 재입금 받는 방식으로 식자재 구입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노인요양원처럼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5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 등은 학교에서 퇴학당한 뒤 가출해 인터넷 채팅으로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도 입건할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뇌물수수 오현섭 전 여수시장 10년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공사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 건설 회장에 게서 4억원 등을 받았고 이 돈은 모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수수하거나 교부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수시에서 추진하던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 등의 공사를 수행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마 회장에 게서 4억원을 받고 조병업체 N사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작년 5월 여수시가 발주한 설

계용역 절차 진행과 대금지급 등에서 편의를 봐주고 설계용역업체 D사 대표 김모씨에게서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행각을 벌이다 잡혀 60일 만인 지난해 8월 자수했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공무원과 지자체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뇌물죄에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7억124만원을, 범인도피죄 등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6·2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시·도의원 출마자 및 선거운동원 등에게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돼 지난 6월 징역2년6월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농사 짓는데 필요해" 선배 경운기 훔쳐

○"동네 선배의 농기계 보관창고에서 경운기를 몰래 훔쳐간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24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6)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경 광주시 북구 건국동에서 양봉장을 하는 동네 선배 박모(54)씨의 농기계 보관창고에서 시가 50만원 상당의 경운기 1대를 몰래 훔쳐 타고 갔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경운기 열쇠의 경우 비슷한 형태의 키만 있으면 시동이 걸린다는 점을 알고 가져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농사를 짓는데 경운기가 필요해 훔쳤다"고 진술.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겁없는 10대들

여중생 성매매 강요·성매수男 협박 3명 검거

광주동부경찰은 24일 가출 여중생 3명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뒤 돈을 뜯어낸 김모(16)군 등 10대 3명을 아동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검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 9월 중순께 여중생 박모(15)양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찾아온 남성과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뒤 현금 8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성매수 남성을 협박해

5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 등은 학교에서 퇴학당한 뒤 가출해 인터넷 채팅으로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도 입건할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새로운 개념의 MY-MO 심는가발 마이모

호자가발 세일 39만원

특수가발 대여!!

- 수영, 사우나, 스포츠, 취침시 완전해결
- 100% 인모사용 및 형상기억 모발
- 영화 기법을 이용한 Front NET souk 제품출시
- 타사 수선, 교정관리

"내머리같은 자연스러운" 내 나이를 찾으세요

KBS **웃찾사** **세상의아침** SBS **웃찾사** MBC **세상** 전국방영

NEW 신제품 0.02mm 마이크로 가발

경력 20년 노하우 062-224-2738 010-4809-2738

우리은행 현대카드 금호합금카드 마이모 (남성발 409호)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 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 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펍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454-7722